

AUGUST  
2021

**M**  
LUXURY



CLARINS  
PARIS

Double Serum  
[Hydric + Lipidic System]

Traitement Complet Anti-Âge Intensif  
Complete Age Control Concentrate

CLARINS





# FENDI

ROMA

<LUXURY M>은 2016년 창간 이래 최고의 프리미엄 매거진 <LUXURY>의 기획과 진행으로 <매일경제>의 주요 지국과 <LUXURY> 독립 배본망을 통해 배포되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잇는 시티 라이프스타일 미디어입니다.

luxury.designhouse.co.kr

<럭셔리M> 기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아카이브

luxuryeditors

<럭셔리M> 에디터가 직접 올리는 생생한 온라인 취재 현장

luxuryeditors

<럭셔리M> 에디터가 만드는 아름답고 감각적인 '사진 뉴스'



### Double Serum

20가지 식물 성분에 강황이 더해져 강력한 안티에이징 효과를 발휘하는 클라랑스 베스트셀러 '더블 세럼 콤플리트 에이지 컨트롤 콘센트레이트'. 주름을 개선하고 피부 톤을 환하게 가꿔주는 등 노화의 징후를 개선한다. 2가지 제형이 다른 공간에 담겼다가, 펄핑 시 황금 비율로 섞이며 하나로 합쳐진다. 식물 추출물이 선사하는 안티에이징 효과를 직접 경험해보자.

# CONTENTS



04 HEAD TO TOE  
이달에 알아야 할 정보와 트렌드



06 BUY NOW  
쾌적한 여름 나기에 필요한 패션·뷰티 아이템

08 INNOVATOR  
성수 문화 공간을 개척하는 팀포지티브제로 김시은 대표



10 ART  
사람 같은 개를 더 사람같이 찍는 작가, 윌리엄 웨그먼

14 JEWELRY  
다양한 소재와 기법을 적용한 여름 반지

18 COSMETICS  
다양한 스펙트럼을 자랑하는 비누의 향연

20 DRIVING  
드림 카를 타고 최고급 호텔에서 즐기는 여름 호캉스

24 MUSIC  
무더위에 지친 하루를 다독일 6가지 색의 음악 이야기

26 CULTURE  
여름부터 연말까지, 놓쳐서는 안 될 하반기 뮤지컬 7

28 DESIGN SPOT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4점 4색 라이프스타일 식료품점

## EDITORIAL

편집 02-2262-7437

편집장 윤정은 Jungeun Yoon · yoon29@design.co.kr

## FASHION

기자 홍혜선 Hyesun Hong · hhs@design.co.kr

기자 최윤정 Yoonjung Choi · yj.choi@design.co.kr

## BEAUTY

수석기자 정애경 Aekyung Jung · ak.jung@design.co.kr

기자 이지형 Jihyung Lee · jh.lee@design.co.kr

## LIVING/FEATURES

수석기자 김수진 Sujin Kim · jin@design.co.kr

기자 안서경 Seogyong Ahn · seo@design.co.kr

기자 한홍은 Dongeun Han · dehan@design.co.kr

게스트 에디터 이승률 Seungrul Lee

미술장 손익원 Ikweon Sohn · bart@design.co.kr

디자이너 홍수연 Sooyoun Hong · syhong@design.co.kr

김보성 Bosung Kim · today17@design.co.kr

포토 디렉터 이우경 Wookyoung Lee · watt@design.co.kr

포토그래퍼 이기태 · 이경욱 · 이창화

Tone Studio 디렉터 염정훈 Junghoon Yum

포토그래퍼 황인우 Inwoo Hwang

교정·교열 전남희 Namhee Jeon

## ADVERTISING

광고 02-2262-7401

유통 관리 02-2262-7407

정기 구독 080-007-1200

이사 이경호 Kyongho Lee · paradise@design.co.kr

부장 김수진 Soojin Kim · kimsoojin@design.co.kr

차장 문민혁 Minhyuk Moon · moonmh@design.co.kr

유통 관리 매니저 송은우 Eunwoo Song · ewsong@design.co.kr

부장 이근태 Guntai Lee · guntai77@design.co.kr

부사장 김은령 exlibris@design.co.kr

## DESIGN HOUSE INC.

디자인사업부부장 이민형 디자인프레스(주) 대표 겸직 lucy@design.co.kr

전시사업부부장 조상연 이사 Sangyeon Cho · csy@design.co.kr

경영전략부부장 이영임 상무 Youngim Lee · yilee@design.co.kr

법률 고문 김영철 변호사 · 변리사(법무법인 KCL)

회계 자문 삼덕회계법인

대표이사·발행인 이영혜

2021년 8월호 통권 제58호, 2016년 10월 12일에 등록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50, 2021년 7월 28일 발행(매월 발행)

발행 공금처 (주)디자인하우스(02-2275-6151)

필름 출력 (주)에이디코아(02-323-6493)

인쇄처 M-print(031-8071-0960)

주소 서울시 중구 동호로 272

이 잡지의 일부 기사는 간접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FREDERIQUE CONSTANT GENEVE



LIVE YOUR PASSION  
HIGHLIFE  
PERPETUAL CALENDAR  
MANUFACTURE  
frederiqueconstant.com

프레드릭 콘스탄트 5년 무상 공식서비스는 공인된 매장에서 구입한 홀로그램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고객센터 1899-7848

롯데 에비뉴엘 월드타워점 02)3213-2256 롯데백화점 잠실점 02)2143-7122 롯데백화점 대구점 053)660-3146 롯데백화점 강남점 02)531-2287 신세계백화점 본점 02)310-1970  
신세계백화점 스타필드 하남점 031)8072-1870 AK플라자백화점 분당점 031)8023-2176

롯데면세점 소공점 02)759-6771 월드타워점 02)3213-6862 코엑스점 02)3484-9641 부산점 051)810-3861 신라면세점 서울점 02)2230-1480 신라아이파크면세점 02)490-3681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02)6370-4075  
현대백화점면세점 02)2142-6170 | 세이백화점 대전점 042)257-7745 현대백화점 미아점 02)2117-1755

한국심장재단 후원 프레드릭 콘스탄트는 판매금의 일부를 한국심장재단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 HEAD TO TOE

특별한 장소에서 누리는  
웨딩 이벤트와 새로운 매장 오픈 소식,  
뷰티 신제품과 전시 소식까지.  
무더위 속 가라앉은 마음과 분위기를  
환기할 흥미로운 소식들을 모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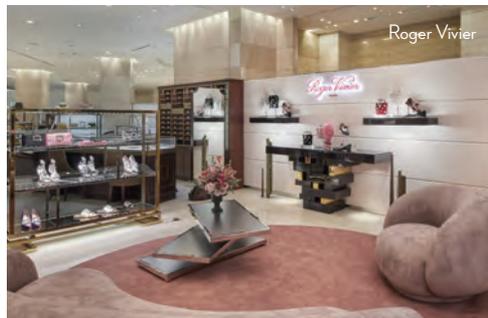
글 홍혜선(HHS)·이지형(LJH)·최윤정(CYJ)·한동은(HDE) 기자

## PENTHOUSE WEDDING

1983년 개관 이래 베일에 싸여 있던 밀레니엄 힐튼 서울 23층의 펜트하우스가 럭셔리한 웨딩 장소로 새롭게 공개되었다. 이곳은 고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의 집무실이자 영빈관으로 사용되었던 역사 깊은 공간으로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버진 로드 양옆으로 넓고 긴 창이 시원하게 나 있어 서울 남산 일대의 시티 뷰를 파노라마로 감상할 수 있다. 최소 인원 20명부터 예약 가능해 럭셔리하면서도 프라이빗한 소규모 결혼식을 선호하는 예비부부들에게 적합하다. 문의 317-3433 (HDE)



## GRAND OPENING



Roger Vivier

**ROGER VIVIER** 신세계백화점 본점 본관 1층에 국내 아홉 번째 매장이 문을 열었다. 현대적 무드와 고전적 분위기가 조화를 이루는 공간 속에 로저비비에를 상징하는 핑크 컬러를 적재적소에 사용했고, 프랑스 특유의 우아함과 창의적인 디자인 감각을 녹였다. 6월 24일에 한국 단독으로 선보인 '미나 러브 리미티드 에디션'도 준비되어 있다. 문의 310-1654



Valentino

**VALENTINO** 발렌티노 남성 매장이 새로 동지를 트 롯데백화점 본점 5층. 석고 패널 벽체와 테라초 바닥 등을 사용해 이탈리아의 궁전인 팔라초에서 풍기는 웅장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특히 이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제품을 선보여 눈길을 끈다. 'VLTN 타임즈' 컬렉션의 저지 후드와 가방, VLTN 로고 오픈 스니커즈가 바로 그 주인공. 문의 772-3845



Tom Ford

**TOM FORD** 롯데백화점 본점 5층에 톰 포드 남성 매장이 들어섰다. 화강암 바닥과 차콜 그레이 컬러 카펫으로 장식한 매장 입구에 들어서면 먼저 신제품 가방과 가죽 제품을 착용해볼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소파에 앉아 다양한 신발을 신어볼 수 있는 곳과 슈트 및 이브닝 웨어, 스포츠 의류 등을 입어볼 수 있는 구역까지 알차게 만날 수 있다. 문의 772-3591 (HHS)

## NEW SCENTS

### GUCCI

구찌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 구찌의 역사에 대한 헌정의 의미로 '알케미스트 가든 1921'을 출시한다. 네롤리 향을 중심으로 과일 향이 절묘하게 어우러진다. 문의 080-850-0708



### DIPTYQUE

신선한 민트 향과 제라늄 향이 어우러지며, 파출리 향이 깊이를 더하는 '오드 민떼 오드 퍼퓸'을 소개한다. 문의 3479-6049



### PENHALIGON'S

3가지 향을 각각 10ml 사이즈로 구성한 '트리오 컬렉션'을 선보인다. '엠프레스', '루나', '더 페이버릿'으로 구성된 '플로럴 컬렉션 트리오'와 '할페티', '루나', '로드조지' 향이 담긴 '클래식 컬렉션 트리오'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3443-1805 (LJH)



# CELEBRITIES AT THE EVENT



영화 <더 수베니아 2> 포토콜 현장에서 사벨의 멀티컬러 점프슈트를 이목을 사로잡은 배우 틸다 스윈턴.



사벨의 뮤즈다운 선택이다. 프랑스 영화배우이자 가수 바네사 파라디는 제74회 칸 영화제에서 사벨의 2021 S/S 시즌 컬렉션 의상인 분홍색 모슬린 드레스를 입고 등장했다.



배우와 뮤지션으로도 활약하고 있는 모델 수주, 제74회 칸 영화제의 레드 카펫 행사에서 사벨의 레이스 점프슈트를 당당하게 소화한 모습이다.



디올과 <보그>의 공동 주최로 열린 디너파티에 초대된 배우 에이드리언 브로디. 블루 톤은톤 스타일에 갈색 가죽 구두를 매치해 세련되고 정돈된 스타일을 완성했다.



제74회 칸 영화제에서 배우 제시카 채스테인이 선택한 디올의 검은색 드레스는 메시 소재를 여러 겹 레이어링해 우아한 벨벨 실루엣을 연출한다.



영화배우 엘사 질베르스테인이 제74회 칸 영화제에서 착용한, 섬세한 자수 장식이 돋보이는 크리놀린 드레스는 조르지오 아르마니 프리메 제품.(CYJ)

# REMARKABLE EXHIBITION



'Girlforest'

<소프트 퍼레이드> 클라라 크리스탈로바Klara Kristalova의 작품 속 인물이나 동물은 관객들과 눈을 마주치고 있거나 때론 눈을 아예 가리기도 하며 관객에게 저마다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처럼 보인다. 작품은 주로 선반이나 받침대에 설치해 관객들과 눈높이를 맞췄다. 작가는 외부의 힘이 닿는 대로 변형되는 도자의 성질에 주목하는데, 이는 손으로 작업한 흔적이 남아 있는 점토와 질감이 드러나는 유약에서 포착할 수 있다. 스웨덴 스톡홀름 북쪽 지방의 호수 옆 산속에 위치한 작가의 작업실에서 서울 전시를 위해 작업한 신작을 만날 수 있는 개인전이 페로탕서울에서 진행 중이다. 8월 13일까지. 문의 737-7978



'Untitled'

<조엘 샤피로 개인전> 생동감 넘치는 색의 직육면체들의 조합이 마치 역동적인 포즈를 취한 사람을 닮아 있다. 페이스 갤러리 서울에서 개인전을 여는 미국의 세계적인 조각가 조엘 샤피로 Joel Shapiro의 작품이다. 작가의 조각 작품은 주로 브론즈를 소재로 사용하지 않던 몇몇 작품에서는 표면에서 나뭇결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작가의 독특한 주조 방식에서 생겨난 결과물인데, 주조 과정에서 목재 틀을 사용하기 때문에 나무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구상과 추상을 넘나드는 그의 조각 작품은 페이스 갤러리 1,2층으로 이어지며 야외 테크를 포함한 모든 전시 공간에서 구작과 신작이 서로 조응하며 설치되어 있다. 9월 11일까지. 문의 790-9388 (HDE)

BUY N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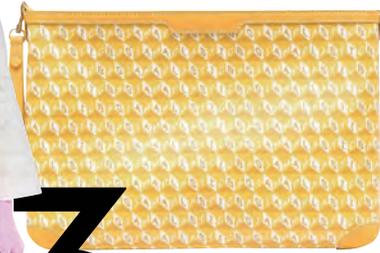
1  
더블 크리스털 버클과 날렵한 고무 밑창이 눈에 띄는 '슬라이드 비브 스트라스 버클' 물 로저비비에(6905-3370)



버킷 모자 위에 탈착 가능한 페이스 마스크를 겸친 선바이저. 마린 세르(marineserre.com)



2  
내부에 3개의 카드 주머니가 있어 별도의 지갑을 수납할 필요가 없는 '모노그램 프린트' 클러치백. 안야힌드마치 by 파페치(080-822-1476)



3  
푸른색 디올 오블리크 패턴의 버킷 모자. 중앙에 두른 자수 밴드가 자칫 복잡해 보일 수 있는 디자인을 정돈해준다. 디올(3480-0104)



4  
신는 양말 색깔에 따라 다채로운 스타일링이 가능한 '레플리카 PVC' 운동화. 메종 마르지엘라(3442-3012)



# ALL ABOUT PVC

마냥 투명하기만 한 건 지루하다. 패턴과 컬러, 레터링 등의 포인트를 살린 PVC 아이템으로 패셔너블하게 비를 피하는 법!

글 최윤정 기자 | 사진 엄정훈 | 어시스턴트 차세연



5  
아이코닉한 얼굴 모양 엠블럼과 자수 패치, 은색 체인 등이 어우러진 액세서리. 아크네 스튜디오 by 미스터포터(0079-8611-0034)



6  
붉은색 PVC 소재 위에 'Louboutin' 로고를 새긴 아이폰 X 전용 케이스. 크리스찬 루부탱(541-8550)



7  
1960년대 감성의 강염 체크 패턴을 접목한 '더 드리머' 백. 델보(3449-5916)

갓 세탁한 깨끗한 리넨 향을 남기고  
손을 촉촉하게 가꿔주는 '블랑쉬 핸드크림'.  
바이레도(3479-1688)

건조한 손을 즉각적으로 편안하게 가꿔주고  
화이트 티의 감각적인 향을 남기는  
'화이트 티 핸드크림'. 킬리안(3440-2923)

상쾌한 라임과 바질 향이 어우러지며  
감각적인 향을 완성하는  
'라임 바질 앤 만다린 핸드크림'.  
조말론 런던(3440-2750)

벨벳처럼 부드럽고 보송하게  
마무리되며 은은한 향을 더하는  
'로즈 핸드 & 바디 크림'.  
에어린(6971-3212)

# HAND ESSENTIALS

어느 때보다 손을 자주 씻게 되는 요즘,  
거칠어진 손을 부드럽고 향기롭게 가꿔줄 핸드크림 8.

글 이지형 기자

오행초와 황금 추출물이 거친 손을  
매끄럽게 가꿔주는 '공진향 핸드크림 SPF 10'.  
더 히스토리 오브 후(080-023-7007)

히노키 나무의 신비롭고 따뜻한  
향을 담았으며 시어버터, 스위트 아몬드  
건조한 손을 촉촉하게 하는 '핸드 폼마드 히노키'.  
르 라보(3440-2591)

아르간 오일이 풍부한 영양을 전하며  
손을 부드럽게 하는 '럭셔리 핸드크림'.  
딤티크(3479-1688)



베르가모트, 파출리, 샌들우드  
정묘하게 어우러지며 은은한 흙 내음을  
완성하는 '누데이치 핸드크림 000'.  
템버린즈(1644-1246)



Off White



Acne Studios



팀포지티브제로 김시온 대표

# 앞으로의 라이프스타일 공간을 상상하는 실험

성수동에 10곳이 넘는 리테일 공간과 브랜드를 만든 크리에이티브 집단 팀포지티브제로. 이곳을 이끄는 김시온 대표는 한 건물 안에서 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일상을 영위하길 꿈꾼다. 연무장길 한가운데에 새로 문을 연 ‘플라츠’는 그 비전이 태동하는 곳이다.

글 안서경 기자 | 사진 이창화 기자

서울에서 끊임없이 젊은 감각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지역을 묻는다면, 누구든 성수동을 먼저 떠올릴 게 분명하다. 수년째 성수동은 카페, 바 등 F&B 비즈니스를 하는 이들의 성지이자, 코워킹 및 코리빙 스페이스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며 MZ세대의 생활 방식이 녹아든 지역으로 변모 중이다. 2013년, 일찍이 성수동에 아티스트들의 커뮤니티를 표방한 예술 문화 공간 ‘플레이스 사이’를 열어 운영해온 김시온 대표. 무용, 연극 등 공연을 펼치던 대안 공간에서 나아가 그는 문화 콘텐츠를 좀 더 일상 가까이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고심했고, 그 단서를 리테일 비즈니스에서 찾았다. 그렇게 탄생한 팀포지티브제로는 셰프, 디자이너, 미디어 아티스트, 사진가 등 여러 전문가를 주축으로 구성된 크리에이티브 집단이다. 삶에서 효율성과는 거리가 먼, 무용해 보이기 쉬운 것들이 일상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뜻에서 지은 이름처럼, 팀포지티브제로(TPZ)는 라이프스타일 분야의 리테일 비즈니스를 펼쳐왔다. TPZ는 2017년 재즈 바 ‘포지티브제로 라운지’를 필두로 미드센추리 모던 시대 가구와 전시 공간을 결합한 ‘카페 포제’를 포함해 LP 바와 패션 플래그십 스토어를 겸하는 ‘로스트 성수’ 등 10곳 이상의 리테일 공간과 브랜드를 연이어 성공적으로 선보였다. F&B, 음악, 패션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먹고, 마시고,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온 것이다. 현재 TPZ에는 20명 남짓한 구성원이 소속되어 있다. 단순히 공간을 기획하는 팀이라 여기기엔 구성원의 면면이 흥미롭다. 레스토랑 ‘렝팡스’의 오너 셰프였던 김태민, 카페 ‘아러바우트’의 대표 겸 바리스타 윤성수 등 본업에 확실한 실력을 갖춘 이들이 합류한 것. 김시온 대표는 다양한 주체들을 결속하기 위해 그만의 라이프스타일 공간에 대한 견고한 생각을 공유했다.



## 공간 경험의 층위를 쌓는 시도

요즘 라이프스타일 공간은 한 가지 콘셉트만 갖춰서는 발길을 부르기가 어렵다. ‘복합 문화 공간’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통용되는 만큼, 하나의 공간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카페나 바에서 더 이상 음료만 마시지 않고, 식료품 또는 굿즈를 사거나 전시를 볼 수 있다. 공간 한편에서 공연과 이벤트가 열리는 일도 더는 낯설지 않다. 날마다 새로운 공간이 생겨나는 시대에, 재방문하고 싶은 곳이 되려면 공간을 채우는 콘텐츠가 바뀌어야 한다. TPZ은 이런 흐름을 일찍이 포착해 제안해왔다. “‘포지티브제로라운지’를 구상했을 때 당시 성수동에 재즈를 들으러 올 사람은 없다고 모두 말렸지만, 공간의 성패와 관계없이 재즈 뮤지션들이 라이브 공연을 할 수 있는 일상적인 분위기의 재즈 바가 서울에 꼭 필요하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지금은 연간 300팀이 공연을 하는 유일한 장소가 됐죠.”



김시온 성악을 전공하고, 게임 회사에서 일했다. 2017년 크리에이터들이 지속적으로 창작 활동을 영위하면서 문화 콘텐츠를 제안하는 크리에이티브 집단 겸 회사 '팀포지티브제로'를 설립했다. 현재 F&B, 음악, 패션 등 라이프스타일 분야 리테일 공간과 비즈니스를 10개 이상 운영 중이며, 2021년 리테일뿐만 아니라 업무 공간을 포괄한 복합 공간 '플라츠'를 선보였다.

명확한 조합으로 탄생한 공간들은 선명한 색깔을 지녔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와인을 마시며 LP를 쇼핑할 수 있고, 디제이의 음악을 들을 수도 있는 '로스트 성수'도 마찬가지다. 그는 공간에서 누릴 수 있는 경험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며, 이를 실현할 때엔 철저히 수평적인 파트너십으로 역할을 위임한다. 각각의 구성원들은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공간을 채우는 아이디어를 펼치고, 소통한다. 이러한 방식은 성악을 전공하고 게임 회사 엔씨소프트에 재직하기도 한 그의 이색적인 배경에서 비롯된 것. "성악을 전공해 예술가들의 독립적인 성향을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또 게임 회사에서 여러 플레이어들을 하나의 조직인 '길드'로 구성하고, 최적의 스킬을 조합하며 시뮬레이션하던 습관이 남아 있고요. 팀을 구성할 때에도 실력뿐만 아니라 얼마나 진심으로, 깊이 있게 본질을 탐구하는지 중점적으로 보곤 하죠. 그동안 TPZ에 소속된 모든 크리에이터가 디렉터를 중심으로 직영 브랜드를 운영했다면, 앞으로는 좀 더 열린 협업을 꿈꿔요. 크리에이터나 브랜드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 관계를 매니지먼트하는 회사로 나아가는 것이죠."

### 도시에서 누리는 복합적 경험을 망라한 곳, 플라츠

7월 성수동 연무장길에 문을 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 '플라츠1'은 이런 목표가 반영된 곳이다. 한 건물 안에 상업 공간과 워크 플레이스를 결합했다. "모바일로 점점 많은 걸 할 수 있는 시대에, 사람들이 오프라인 공간을 방문해야 할 이유를 끊임없이 전체 공간을 기획하려 했어요. 플라츠는 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경험이 가능하도록 만들 거예요. 앞으로 스테이 공간을 더하거나 색다른 콘셉트의 디자인을 표방한 곳이 될 수도 있죠." 김시온 대표의 말에서 플라츠라는 이름 뒤에 '1'을 붙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플라츠의 지하에는 라멘집을 포함한 F&B 브랜드가, 1층에는 을지로의 타코 맛집 '타케리아 스탠' 팀과 협업해 푸드 코트 '스탠 서울'과 리빙 및 푸드 편집숍 '먼치스앤구디스'가 입점해 있으며, 2~3층은 크리에이터들을 상대로 한 작업 공간과 사무실을 구독 방식으로 제공한다. 4층은 TPZ의 업무 공간이다. 공용 워크 플레이스에는 바우하우스 시대의 디자인 가구들과 예술 서적이 놓여 있고, 사진 촬영을 위한 스튜디오 등 작업실 공간도 구성돼 있다. 같은 공간에서 비슷한 취향으로 느슨하게 묶여 네트워킹을 하기 위한 의도다. "과거에는 부동산 개발업자, 즉 공급자 위주로 건물이 지어지고, 그곳에 크리에이터들이 입점하는 방식이다 보니 덜 매력적이고, 어색한 공간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많았죠. 창작자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점이 저희 회사의 특징인 만큼, 협업을 통해 라이프스타일 공간을 구성하고, 유통하는 구조로 재편하는 것이 앞으로의 지향점입니다."



야외 가든을 마련한 플라츠1의 1층.



건축, 디자인, 회화 등 다양한 예술 서적을 배치한 워크 플레이스.



'Head Wear, Neck Wear', 2000

## 아티스트 윌리엄 웨그먼

BOBBIN



William Wegman holding a cutout of Bobbin, 2008. photograph by Tim Mantoani

윌리엄 웨그먼 1960년대부터 개념 미술과 비디오 작업을 해온 윌리엄 웨그먼은 화가, 사진작가 그리고 비디오 작가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현대 예술의 거장이다. 자신의 첫 번째 반려견 '맨 레이'를 비롯한 바이마라너 견종을 의인화한 작업으로 잘 알려졌으며, 사진에 드러난 작가 특유의 재기 발랄한 상상력과 재치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보스턴 미술관, 샌디에이고 현대미술관, 뉴욕 현대미술관(MoMA), 휘트니 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돼 있다.

HUMAN

우주비행사, 성직자 등으로 분한 심각한 개의 표정이 웃음을 부른다.

'회색 유령'이라는 별명의 바이마라너를 마치 사람처럼 사진에 담아내는 윌리엄 웨그먼 William Wegman의 전시 <비잉 휴먼>이 열린다.

가장 중요한 뮤즈이자 평생을 함께하는 반려견을 촬영해온 작가와 나눈 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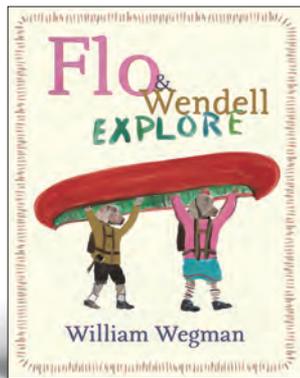
글 한동은 기자

1970년 9월, 캘리포니아 롱비치에서 사진을 찍던 윌리엄 웨그먼의 카메라 렌즈에 회색 개 한 마리가 들어왔다. 그런데 귀여움과는 거리가 먼 심각한 표정의 이 개가 마치 사람처럼 카메라 렌즈 앞에서 매혹적인 포즈를 취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이 개에게 가장 존경하는 사진작가 '맨 레이 Man Ray'의 이름을 붙여줄 때까지만 해도, 작가는 이후 무려 14마리의 같은 바이마라너 견종을 반려동물로 들이며 개를 촬영하는 작업을 지속하게 될 줄 알지 못했다. 그의 모델이 된 맨 레이도 몰랐을 것이다. 자신이 미국 NBC 방송국의 인기 프로그램 세터데이 나이트 라이브쇼(SNL)에 서고 뉴욕 주간지 <빌리지 보이스>로부터 'Man of the Year(올해의 남자)'로 선정되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스타 견이 될 줄은.

개를 의인화한 사진으로 잘 알려진 윌리엄 웨그먼은 드로잉은 물론 사진, 비디오, 설치, 퍼포먼스 등 작업 방식에 한계를 두지 않고 다양한 결과물을 선보여온 아티스트다. 사진은 그저 현실을 구현하는 수단일 뿐이라는 인식이 만연하던 1970~1980년대 보수적인 미국 미술계에서, 웨그먼은 당시 예술의 대상으로서 비주류이던 개를 의인화해 인간의 삶을 풍자하는 의미를 담아내며 사진 예술의 한 지평을

<Flo & Wendell Explore>

2014년 출간한 <플로 & 웬들 익스플로러>는 윌리엄 웨그먼이 3~5세 어린이들을 위해 만든 동화책이다. 현재 자신이 키우고 있는 플로와 토퍼를 모티프로 삼고, 토퍼의 이름만 웬들로 바꿔 두 주인공으로 세웠다. 이전에 출간한 <플로 & 웬들>의 후속작으로, 형제인 두 강아지의 모험을 그린 이야기다. 강아지 사진에 페인팅을 더한 일러스트가 특징이다.



열었다. 다채로운 색상을 사용해 시각적 이목을 끌고, 작가 특유의 재치 있는 상상력과 섬세한 연출력으로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색면 회화, 입체파, 구성주의, 착시 현상, 허구 이야기 그리고 상업적인 패션 화보까지 개 사진에 대입하며 새로운 작업 세계를 구축해나갔다.

그를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24x20인치(61x51cm) 대형 폴라로이드 카메라. 1979년, 맨 레이가 9세 때부터 작가는 이 냉장고 크기의 대형 폴라로이드로 반려견을 담기 시작했으며, 기존 흑백사진엔 보이지 않던 개의 노화한 부분을 가리기 위해 소품과 장신구를 활용했다. 첫 번째 뮤즈인 맨 레이가 체장암으로 죽은 뒤, 아름다운 노란색 눈동자를 가진 두 번째 뮤즈 페이 레이를 키우기 시작했다. 이후 페이의 새끼들인 베티, 크루키, 천도 그리고 그 자식의 후손들까지 총 14마리가 대를 이으며 웨그먼의 특별한 모델이 되어주었다.

윌리엄 웨그먼 사진전 <비잉 휴먼>이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7월 8일부터 9월 26일까지 열린다. 에디션 없이 단 하나뿐인 폴라로이드 작품들부터 디지털 인화 사진까지 100여 점을 만날 수 있는 전시다. 개의 깊은 눈망울에 비치는 주인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현대인에게 치유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당신은 독일종 사냥개인 바이마라너를 주로 촬영해왔다.** 바이마라너는 패션지 모델처럼 도도하고 심각한 표정을 짓는다. 만약 다른 개들처럼 마냥 귀여웠다면 진지한 사진을 찍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견종은 아름다운 회색 털을 가졌다. 회색은 그 어떤 것보다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사람처럼 옷을 입힐 때 어려움은 없었나?** 바이마라너에게 사람의 옷을 입게 한 것은 대형 폴라로이드 프레임에 눈높이를 맞추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해선 개들을 일으켜 세워야 했는데 사람의 옷을 입히자 그 모습이 자연스러웠다. 다음 문제는 드레스를 입히는 건 비교적 쉽지만 바지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특별한 스톨을 개발했고 내 조수 제이슨 버치와 안드레아 비먼이 도와주었다. 두 명 다 힘이 세고 날씬해서 개들에게 팔을 내어주고도 몸을 뒤로 날렵하게 숨길 수 있었다.

**사진 속 개의 눈망울엔 포토그래퍼이자 주인인 당신을 향한 애정과 신뢰감이 어려 있다. 개의 눈빛과 표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당신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눈에 바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함께했던 모든 개들이 완벽한 모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훈련시키거나 음식이나 간식을 이용하지는 않는다. 내 목소리와 손이면 충분하다.

**“사랑하는 사람을 촬영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지도를 만드는 것과 같다. 현실로 돌아가 그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볼 수 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사진을 찍으며 개에 대해 새롭게 발견한 면이 있나?** 개마다 기억에 남는 특정한 모습이 있다. 사진으로 이 모습을 포착하고 영원히 박제해, 더 많은 사람의 기억에 남기고 싶다. 특히 지금 키우고 있는 강아지 토퍼는 밝고 귀여운 눈을 가지고 있다. 반면 토퍼의 누이인 플로는 의미심장하고 어딘가 사악한 시선을 카메라에 보여준다. 두 번째 개였던 페이도 이런 표정을 짓곤 했다.

**50년간 사진을 찍으며 카메라에도 변화가 있었을 것 같다.** 나는 1979년부터 2007년까지 20x24인치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사용했다. 폴라로이드 사진은 어떤 보정도, 변형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의 실제 표정과 움직임을 그대로 담아낼 수 있었다. 그리고 30년간 한결같이 20x24인치 크기의 작업을 함으로써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작품 컬렉션이 만들어진점도 정말 마음에 든다. 2007년부터는 대형 사이즈 필름을 구할 수가 없었고 자연스럽게 디지털 포맷 사용법을 배워야 했다. 사진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 않나? 촬영 방식에 상관없이 개들은 여전히 카메라 앞에서 온갖 재주를 부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포맷에도 만족한다.

**직접 도슨트 설명을 녹음해, 한국의 관객들과 목소리로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소감이 궁금하다.** 내 작품을 보는 관객이 있어 행복하고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작업에 담긴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 특히 이렇게 직접 관객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 도슨트 녹음을 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다. 전시를 관람하는 이들이 작품의 다양성을 느끼고 각양각색의 개들이 간직한 저마다의 개성을 알아봐주길 바란다.



# SUMMER RING

청량한 블루 스톤, 매끈한 화이트 골드, 속이 뽕 뚫린 오픈워크 기법을 적용한 여름 반지.

EDITOR HONG HYESUN PHOTOGRAPHER YUM JUNGHOON



## Blue Stone

청량한 빛이 감도는 푸른색 원석은 여름에 진가가 드러난다.

튀르쿠아즈, 라피스라줄리, 사파이어, 아라마린 등

채도와 명도가 다른 푸른 원석은 이토록 다양하다.

스타일에 따라 고르는 재미도 있다.

튀르쿠아즈 스톤을 세팅하고, 무빙 다이아몬드를 더한  
하트 모티프가 마주 보는 형태의 '해피 하트' 링은 쇼파드.

튀르쿠아즈와 다이아몬드를 각각 장식한  
T 모티프가 대칭을 이루는 '티파니 T 스퀘어' 링은 티파니.

뱀의 머리를 상징하는 라피스라줄리 드롭 모티프와

뱀의 비늘을 표현한 골드 비즈가 어우러진

'세뺨 보험 라피스라줄리 투헤드' 링은 부쉐론.



2가지 색감의 블루 사파이어를  
스노 세팅 기술로 세공한 '선라이트' 링은 피아제.  
다이아몬드 사이에 규칙적으로 배치한  
사파이어가 돋보이는 '벨에포크' 링은 다미아니.  
물방울 모양의 페어 컷 아ква마린을 중앙에 세팅하고  
42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로  
주위를 감싼 '조세핀 아그레뜨' 링은 쇼메.

## White Gold

햇빛에 그을린 여름 피부에 잘 어울리는 화이트 골드.  
다이아몬드 장식이나 다양한 보석 세공 기술에 따라  
무한한 변형이 가능한 덕에 취향을 타지 않는다.

화이트 골드 위에 퀘팅 모티프를 새기고 각기 다른 크기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코코 크러시' 링은 샤넬.  
알파벳 T의 형태와 뉴욕의 건축물에서 받은 영감으로 탄생한  
'티파니 T 투 내로우' 링은 티파니.  
다이아몬드와 더블 불가리 로고의 알파벳을  
번갈아 배치한 '불가리 불가리 로만 소르베' 링은 불가리.



# Openwork

오픈워크 세공 기법은 재료를 뚫거나 도려내는 작업으로  
철저한 계획 아래 이루어지는 고난도 기술이다.  
그만큼 더욱 아름다운 면모를 드러내며 맘이 차기 쉬운 여름에 착용하기도 좋다.

코르셋을 연상시키는 구조가 독특한 '레이스업' 링은 타사키.  
섬세한 오픈워크 세공과 다이아몬드 라인, 그로그랭 모티프를 하나로 합친  
'과트로 레디언트 에디션 다이아몬드 오픈워크' 링은 부쉐론.  
유연한 곡선 구조로 물결 형태를 표현한  
로즈 골드 소재 '비제로윈 디자인 레전드' 링은 불가리.  
왕실의 가운과 쿠션 등 패브릭에 사용되는  
패턴에서 영감을 얻은 '임페리얼' 링은 쇼파드.

어시스턴트 차보금 | 소품 협조 39ETC(070-4065-0039)  
제품 협조 다이아니(599-1924), 부쉐론(3213-2246),  
불가리(6105-2120), 샤넬(080-200-2700),  
쇼메(2039-3854), 쇼파드(3479-1808), 타사키(3461-5558),  
티파니(6250-8600), 피아제(3479-1802)



# SOAP SPECTRUM

풍성한 거품이 온몸을 깨끗하게 닦아내는 1차원적인 기능을 넘어, 피부를 촉촉하게 가꿔주고 은은한 향기를 전하기도 한다.  
다양한 스펙트럼을 자랑하는, 하나의 조각품 같은 비누의 향연.

글 이지형 기자 | 사진 엄정훈 | 어시스턴트 이영주



### 습바 로즈

핑크 페퍼콘을 시작으로 라즈베리와 장미가 이어지며 풍부한 파출리와 화이트 머스크로 마무리되는 향. 향수 못지않은 풍성한 장미 향을 남긴다. 바이레도.

### 시나끄티프 사본

모란 추출물, 히알루론산을 함유한 풍성한 거품이 메이크업 잔여물과 노폐물을 깨끗하게 닦아내는 비누. 세안 후에 은은하게 남는 로즈 향도 매력적이다. 콜레드보 보떼.

### 어벤투스 퍼폼드 소프

달콤한 블랙 커런트 향을 은은하게 느낄 수 있는 퍼폼드 솅. 글리세린을 풍부하게 함유해 클렌징 후에도 피부가 부드럽고 촉촉하다. 크리드.

### 트윌리 데르메스 퍼폼드 솅

진저, 투베로즈 그리고 샌들우드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며 감각적인 향을 전하는 퍼폼드 솅. 욕실에 그대로 두면 은은하고 섬세한 향이 공간 전체에 퍼진다. 에르메스.

### 싸봉 뿌르 비싸쥐

60일간 낮은 온도에서 숙성하고 건조해 완성하는 클렌징 솅. 로즈 워터와 로즈힙 오일을 풍부하게 함유해 클렌징 후에도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된다. 뽀아레.

### N°5 솅

샤넬을 상징하는 아이코닉한 향수 'N°5'의 향을 그대로 담은 비누로, 크림처럼 부드럽고 풍성한 거품을 만들어낸다. 장미와 재스민이 어우러진 관능적인 향을 간직했다. 샤넬.

### 상탈 33 바습

풍성한 거품이 온몸을 감싸는 보디 슝. 올리브 오일, 시어버터 등 식물 성분이 샤워 후에도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준다. 스모키하면서 따뜻한 향이 하루 종일 은은하게 감돈다. 르 라보.

**슝 바 세이지**  
피부를 깨끗하게 닦아내고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세이지 오일을 함유한  
보디 & 핸드 슝.  
클렌징 후에도 피부가  
땀기지 않고 편안하다.  
라부르켓.

**바디 클렌징 슬랩**  
세안은 물론 샤워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올인원 비누.  
라임 오일, 일랑일랑 오일이  
피부를 깨끗하게 하고  
시어버터가 수분과 영양을 더해  
부드럽게 가꿔준다. 이슝.

**사포네 라페 로사**  
야자수와 코코넛 오일을 함유한 덕에  
세안 후에 부드럽고 촉촉한 피부를  
마주할 수 있는 세안 비누.  
19세기에 비누가 만들어지던 방식 그대로  
60일간의 숙성을 거쳐 수작업을 통해  
완성된다. 산타 마리아 노벨라.

### 슝 라임 바질 앤 만다린

피부를 깨끗하게 닦아내는 동시에,  
라임과 바질이 어우러진 상쾌한 향을 남긴다.  
공간에 두는 것만으로도 룸 프레그런스  
못지않은 방향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조 말론 런던.

제품 협조 플레드뵘 보떼(080-564-7700), 라부르켓(1644-4490), 바이레도(3479-1688), 뽀아레(310-5025), 산타 마리아 노벨라(6002-3133), 사뵐(080-332-2700), 예르메스(310-5174), 이슝(1800-1987), 조 말론 런던(3440-2750), 르 라보(3440-2591), 크리드(6905-3568)

# SUMMER DREAM

드림 카를 타고 최고급 호텔에서 즐기는 특별한 여름 '호캉스'.

GUEST EDITOR LEE SEUNGRYUL PHOTOGRAPHER PARK WONTAE



## New F-type P380 Coupe First Edition

재규어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스포츠카라 평가받는 'E-타입'의 볼륨감을 고스란히 계승했다. 3.0리터 V6 슈퍼차저 엔진은 최고출력 380마력, 최대토크 46.9kg.m의 성능을 뽐내며 정지 상태에서 100km/h까지 4.9초 만에 도달한다. 차체의 수직 움직임과 롤링, 피치를 초당 500회씩 모니터링하는 '어댑티브 다이내믹스 시스템'도 갖췄는데, 덕분에 과감한 주행에도 안정적인 접지력을 유지한다. 문의 재규어(080-333-8289)

경원재 엠베서더 인천은 국내 최초로 5성급을 획득한, 국내 최대 규모의 한옥 호텔이다. 침대와 온돌 중 선택 가능한 총 30개의 객실을 갖췄으며, 울어룸에는 편백나무 욕조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장난감 세트가 포함된 '아이LOVE' 패키지를 선보인다. 문의 032-729-1101





Grand Inter Continental Seoul Parnas

## Porsche 718 Boxster GTS 4.0

박스터는 이상적인 로드스터다. 작고 가벼운 차체에 4.0리터 6기통 자연 흡기 엔진을 얹어 강력한 퍼포먼스를 발휘하기 때문. 정지 상태에서 100km/h까지 단 4초가 소요되며 최고속도는 288km/h에 이른다. 낮고 넓은 차체와 운전석이 휠베이스 중앙에 위치한 미드십 엔진 특유의 균형감도 '718 박스터 GTS'를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다. 문의 포르쉐(2051-0911)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가 11개월간의 레노베이션 끝에 보다 럭셔리한 분위기로 재개장했다. 이를 기념하며 올여름에는 스위트룸 1박과 호텔 세프가 준비한 6코스 파인다이닝 메뉴를 요일에 따라 400만~500만 원에 선보인다. 문의 555-5656



## Audi e-tron Sportback 50 Quattro

아우디 최초의 순수 전기차다. 아우디 특유의 정제된 디자인과 치밀한 만들새가 고스란히 담겼다. 엔진 대신 2개의 강력한 전기모터를 앞축과 뒤축에 각각 탑재했는데, 합산 최고출력은 313마력으로 1회 충전 시 220km의 주행이 가능하다. 아우디 특유의 사륜구동 방식인 콰트로 또한 보다 높은 효율성을 자랑하는 전자식으로 바뀌었다. 문의 아우디(6009-0000)

소규모 파티를 준비 중이라면 안다즈 서울 강남의 '가이즈 나이트 아웃'을 주목할 것. 그레이 구스 보드카 1병, 맥주 등으로 구성된 주류 바스켓과 속풀이 룸서비스 조식 세트 등 먹거리는 물론, 오후 3시 체크아웃과 사우나 이용 등의 혜택이 포함되어 있다. 문의 2193-7000



Andaz Seoul Gangnam



Fairmont Ambassador Seoul

## Mercedes-Benz S 400 d 4Matic

메르세데스-벤츠가 새롭게 공개한 7세대 'S클래스'는 이전 세대와는 다른 최첨단 장비로 승부수를 띄웠다. 130만 이상의 픽셀로 이루어진 '디지털 라이트'와 3D 계기판, 터치식 12.8인치 OLED 디스플레이 등이 눈에 띈다.

디자인에서도 위용이 느껴지는데 짧은 앞 오버행과 긴 휠베이스, 균형 잡힌 뒤 오버행이 선사하는 비율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문의 메르세데스-벤츠(080-001-1886)

올여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은 더현대 서울에서 다양한 쇼핑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쇼핑 스프리' 패키지를 선보인다. 1박 숙박과 함께 백화점 상품권 3만 원권(30만 원 이상 구매 시) 및 다양한 쇼핑 할인과 사은품 혜택이 제공되며 조식 뷔페도 즐길 수 있다. 문의 3395-6000

# PLAY THE SUMMER



##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숙경

‘보사노바’ 장르의 음악을 좋아한다. ‘이파네마 소녀 The Girl from Ipanema’는 이 장르의 효시를 알린 곡. 브라질 이파네마 해변에서 고독을 즐기는 황금빛 피부의 한 여인을 묘사하는데, 아름답고 시적인 가사를 음미하면 바다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과 브라질의 낭만이 마음속 깊이 스며든다. 여러 뮤지션이 불렀고, 그중 아스트루드 질베르토 Astrud Gilberto가 차분한 목소리로 부른 버전은 경쾌한 리듬과 느긋한 감흥으로 여름밤 분위기를 부드럽게 매만져준다.



### Stan Getz & Joao Gilberto

- The Girl from Ipanema (feat. Astrud Gilberto)
- Adoy Grace
- Hiromi Iwasaki Street Dancer
- Aaliyah At Your Best
- Bruno Mars, Anderson. Paak, Silk Sonic
- Leave the Door Open
- Debussy Clair de Lune
- Tevin Campbell Can We Talk



## AOMG 패션 브랜드 A6ove MD 조아영

팬데믹 상황이 나아진다면 7월 중 이태원에 위치한 ‘카나 코로나’ 바에서 플레이할 리스트다. ‘언제나 갈 수 있을까’ 싶은 외국의 휴양지들을 떠올리며 만들었다. (꼭 순서대로 들어보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음악이 생기면 그 곡의 리믹스 버전도 바로 찾아 들어보는 편인데, 고심해서 제안하는 한 곡은 노르웨이 출신 음악 프로듀서 올레폰켄 Olefonken이 리믹스한 마이클 잭슨의 ‘버터플라이 Butterflies’!



### Michael Jackson Butterflies (Olefonken Remiks)

- Letta Mbulu Nomalizo
- Crazy P The Witness
- Zapp More Bounce to the Ounce (LP Version)
- Junktion Fling Cleaning (Original Mix)
- The Groovers Make Me Feel (Original Mix)
- COEO In Motion
- Fonda Rae Living In Ecstasy (The Groove Mix)
- Mood II Swing Do It Your Way (Album)
- Peggy Gou Starry Night (Original Mix)



## 포토그래퍼 채대한

윤상의 2집 앨범 파트 2에 실린 ‘새벽’은 술 한잔을 기울이는 날이 많은 여름, 그러니까 제목 그대로 새벽을 지새울 날이 잦은 이 계절에 유독 손이 간다. 중학생 때 알게 돼 지금까지 들었으니 닳고도 단 노래다. 그가 남긴 코멘트 중 “이 앨범의 파트 2만큼은 오로지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만 채우고 싶었다”는 말 때문인지 ‘새벽’에서는 거창한 메시지보다 그만의 직관적인 해석과 감상이 읽힌다. 아무튼 느지막이 집에 들어갈 때면 역시 윤상이고, 또 새벽이다.



### 윤상 새벽

- Nina Simone Just in Time
- Pet Shop Boys Leaving
- Ned Doheny Labor of Love
- Phoenix Role Model
- The Smith This Charming Man
- 나미 가까이 하고 싶은 그대
- Kool & The Gang Summer Madness

확실한 취향을 지닌 패션 인사이드러들의 음악 리스트를 훑쳐 듣는 건 신선하고 좋은 곡을 채집하는 데 실패가 없는 시도다.  
 열대야에 잠은 달아나고 더위에 지쳐 노곤한 여름날을 다독일 6가지 색의 음악 이야기.

글 최윤정 기자



**패션모델 메구**

요즘 2000년대 음악에 빠져 있어 자주 찾아 듣는 이유도 있지만 일본 음악 프로듀서이자 싱어송라이터인 다마키 고지 Koji Tamaki의 '시와세노 램프 Shiawaseno Lamp'는 특히 가사가 좋아서 추천하고 싶다.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단니까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라. 중요한 일 따위 알게 된단니까 좋아하는 일을 하고 가거라." 서정적인 멜로디에 얹힌 노랫말이 참 따뜻하고 곱씹을수록 기운을 북돋아주는 느낌. 해가 긴 여름밤에 자연스레 스며드는 곡이다.



- Koji Tamaki Shiawaseno Lamp
- Yamashita Tatsuro Nostalgia of Island
- Lany Super Far
- Michigander Better
- Jason Mras I'm Yours
- Sandra de Sá Guarde Minha Voz
- Easy Life Ocean View



**패션 브랜드 기준 신명준 대표**

솔란지 Solange가 부른 '루징 유 Losing You'는 나에게 질리지 않는 클래식 같은 곡이다. 세계적의 온도 변화에 구애받지 않는 곡이랄까. 인상적인 에피소드가 있다 보니 뇌리에 깊이 박혀 있는 것일 수도. 이탈리아에 여행을 갔을 때, 형제를 잃은 슬픔 때문에 이 나라 저 나라 떠돌다가 그곳에 2년 동안 정착해 있던 미국인 친구를 만난 적이 있다. 어쩌다 좋아하는 곡이라며 추천을 해줬는데, 노래를 틀자 친구가 울어버린 기억. 이 곡에 밀착되어 있는, 여전히 선명한 추억이다.



- Solange Losing You
- 주애 같이 맞는 아침이 난 좋아
- Khalid Shot Down
- Disclosure Where Angels Fear to Tread
- Rihanna Love on the Brain
- DJ T. feat. Cari Golden
- City Life (Maceo Plex Remix)
- TLC It's Sunny
- Mary J. Blige Changes I've been Going Through
- Caetano Veloso Cucurruucu Paloma



**스타일 디렉터 박태일**

아무튼, 여름엔 단순해야 한다. 좀 더워졌다 싶으면 일단 하바이나나스만 신는 것처럼. 리듬 & 블루스, 뉴 잭 스윙, 시티 팝처럼 귓속에 명징한 클리셰가 있는 음악 이야말로 여름에 어울린다. 대뜸 "이름이 궁금하니 1분만 얘기하자"는 발칙한 가사도, 안리 Anri의 중학교 영어 선생님 같은 무미건조한 영어 발음도 여름이니까 기분 좋게 넘길 수 있다. 그리고 언제나 마무리는 김현철 1집이다. 좀 촌스러워도, 좀 뻘뻘도 괜찮다. 지겹도록 듣지 않으면 여름이 아닌 듯이.



- 김현철 오랜만에
- Earth Wind and Fire Can't Hide Love
- Babyface Whip Appeal
- Keith Sweat Nobody
- Tevin Campbell Can We Talk
- Anri Remember Summer Days
- D'Angelo Africa

# MUSICAL CALENDAR

때론 감동으로, 때론 반전으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2021년 하반기 뮤지컬 7편. 글 한동은 기자

## 현대판 그리스 신화, 하데스타운

브로드웨이 뮤지컬 <하데스타운>이 전 세계 최초 라이선스 공연으로 한국에서 초연을 올린다. 2019년 브로드웨이에서 정식 개막한 이후 토니 어워즈 14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고, 최우수상·연출상·음악상 등 8개 부문에서 수상한 기대작이다. 극작과 작사·작곡을 맡은 싱어송라이터 아나이스 미첼 Anaïs Mitchell 이 2010년 발매한 동명의 포크 음악 앨범을 극화한 독특한 배경의 작품으로 그리스 신화를 현실 세계에 맞게 재해석했다. 신화 속 최고의 음유시인 '오르페우스'는 클럽에서 일하는 가난한 웨이터로 표현하고, 죽음을 통해 지하 세계로 들어가는 신화 속 '에우리디케'는 음식과 집을 얻기 위해 스스로 선택해 지하로 내려가는 진취적인 모습으로 그려냈다. 8월 24일부터 2022년 2월 27일까지, LG 아트센터.



## 10년 만에 돌아온, 스프링 어웨이크닝

조정석, 김무열, 강하늘 등 인기 연예인들을 배출하며 신예 등용문이라는 명성을 얻은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이 10년 만에 돌아온다. <스프링 어웨이크닝>은 권위적이던 19세기 말 청교도 학교를 배경으로, 이제 막 성성에 눈뜨기 시작한 사춘기 청소년들이 겪는 방향과 욕망, 불안함 등의 복합적인 감정을 록 음악과 열정적인 춤으로 풀어낸 작품. 한국 초연 당시 더뮤지컬어워즈에서 최우수 외국 뮤지컬상을 수상하며 국내 관객들에게도 인정받은 바 있다. 오랜만에 돌아오는 만큼 제작 방식에도 변화를 주었다. 오리지널 브로드웨이 버전이 아닌 2018년 맨체스터 버전을 기본으로, 한국 크리에이티브 팀의 손길로 재창작해 섬세하고 감성적인 표현에 더욱 집중했다. 7월 8일부터 10월 3일까지, 동국대학교 이해람 예술극장.



## 소극장 뮤지컬의 묘미, 쓰릴미

배우들의 치밀한 감정선과 탄탄한 시놉시스, 그리고 반전과 해석의 여지가 있는 뮤지컬을 선호한다면? 지난 3월 개막 이후 2차 팀으로 7월부터 무대를 이어가며 소극장 뮤지컬 신화를 다시 쓴 뮤지컬 <쓰릴미>를 주목하자. 단 한 대의 피아노, 그리고 '나'와 '그' 역할의 두 주인공만이 무대를 채워나간다. 특히 이번 공연은 2007년 초연 극장인 충무아트센터 중극장 블랙에서 당시의 무대와 조명 디자인을 그대로 재현해 공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쓰릴미>는 미국을 충격에 휩싸이게 했던 유괴 살인 사건, 레오폴드-로업 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작품이다. 감옥에 갇힌 범인 '나'의 가석방 심의로 시작해 34년 전, '그'와 함께 저지른 사건을 되짚어보며 이야기가 펼쳐진다. 7월 20일부터 10월 4일까지, 충무아트센터 중극장 블랙.





## 화려한 영상과 볼거리, 엑스칼리버

2014년 3월, 스위스 세인트 갈렌 극장에서 첫선을 보인 <아더-엑스칼리버>가 2019년 서울에서 월드 프리미어 뮤지컬 <엑스칼리버>로 새롭게 태어났다. 작가 이반 멘첼van Menchell은 아시아 관객의 정서에 맞게 극의 절정을 더욱 비극적으로 대폭 수정했고, 프랭크 와일드혼Frank Wildhorn은 11곡의 새로운 넘버를 작곡했다. 바위에 꽃혀 있던 엑스칼리버를 뽑아내며 영국의 왕으로 추앙받게 된 '아더'가 무자비한 색슨족에 맞서는 여정이 화려한 영상과 무대 기술로 펼쳐진다. 특히 국내 최대 규모인 앙상블 배우 70여 명이 등장하는 대규모 전투 장면이 압권이다. 8월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블루스퀘어 신한카드홀.



## 아름다운 로코코 시대 궁정 의상, 마리 앙투아네트

단두대의 이슬이 된 '마리 앙투아네트'와 그 대척점에서 프랑스혁명을 선도하는 허구의 인물 '마그리트 아르노' 두 여성의 입체적인 서사를 그린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가 2년 만에 샤롯데씨어터로 돌아왔다. 2014년 한국 초연 이후 뮤지컬 <레베카>, <엘리자벳> 등의 작곡가 실베스터 르베이Sylvester Levey가 한국 초연을 위해 새롭게 편·작곡한 넘버들이 호평을 받아왔다. 음악만큼이나 명성이 자자한 것은 의상. 프랑스 로코코 시대 귀부인들의 화려한 드레스를 재현해 제9회 더뮤지컬어워즈 의상상을 수상했다. 7월 13일부터 10월 3일까지.



## 그 시절 음악 속으로, 광화문 연가

유명한 대중음악가의 음악이나, 특정 인기곡을 플롯에 맞춰 구성한 뮤지컬을 뜻하는 '주크박스 뮤지컬'. 한국 주크박스 뮤지컬의 대표 <광화문 연가>는 '붉은 노을', '소녀' 등을 작곡하며 1980~1990년대 한국 대중음악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고故 이영훈 작곡가의 명곡들로 구성된 작품이다. 중·장년층에게는 추억을, 젊은 층에게는 뉴트로 감성을 자극하며 세대를 불문해 사랑받고 있다. 죽음까지 단 1분 남은 주인공 명우가 시간 여행 가이드 월화와 만나 젊은 시절의 추억과 자신을 마주하는 이야기다. 7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 편견에 맞서 꿈꾼다는 것, 빌리 엘리어트

'3대 빌리'를 찾아라! 만 8~12세, 키 150cm 이하, 변성기가 오지 않고 탭댄스, 발레, 아크로바틱 등 춤에 재능이 있는 남자 어린이 160여 명이 모였다. 그리고 약 1년 후 탄광촌에서 발레리노를 꿈꾸는 소년, 4명의 빌리 엘리어트가 탄생했다.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는 2005년 런던 초연 이후 전 세계 5개 대륙에서 약 11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것은 물론 올리비에상, 토니상 등 80여 개의 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는 세계적인 뮤지컬이다. 1980년대 영국 북부 탄광촌에서 복싱 수업을 받던 빌리가 발레라는 꿈을 꾸고 편견과 반대에 맞서 진정한 발레리노로 거듭나는 여정이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지친 관객들에게 희망을 선사할 것이다. 8월 31일부터 2022년 2월 2일까지, 대성 디큐브아트센터.



# GROCERY + CAFE

식음료는 물론 공간의 취향에 맞게 선별한 식료품과 라이프스타일 제품을 만날 수 있는 공간 4.

글 한동은 기자 | 사진 이석영, 이창화·김지은 기자



## 머무름이 있는 낮 풍경, 보마켓 서울로

일상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온 보마켓이 3호점으로 택한 곳은? 112년간 만리동의 세월을 고스란히 담아낸 서울로 사잇길의 오래된 건물이다. 키친랩 '베리 키친'이 저녁 시간에만 운영하며 이 건물의 밤을 지켰었는데, 이제는 보마켓이 낮에도 불을 밝히게 되었다. "베리키친이 위치한 서울로 사잇길을 오가며 낮 시간에 사람들이 머무르는 풍경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인근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 식사하러 잠시 들르는 정도였으니까요. 보마켓이 이 길에서 브런치와 커피 한 잔을 즐길 수 있는 풍경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보마켓 서울로'가 탄생했습니다." 유보라 대표의 말이다. 서울역 인근, 100년 넘는 건물은 일대에서 마치 여행하는 듯한 기분을 선사한다.

보마켓 서울로의 시그너처 메뉴는 카레라이스다. 약 두 달간 공간을 운영하면서 직장인이나 여행자에게 달릴 수 있는 힘은 '밥심'에서 나온다고 생각했다고. 새우가 들어간 동남아풍의 '망고 카레'와 치킨을 주재료로 한 '버터 치킨 카레'를 7월 말부터 만날 수 있다. 만나박스의 채소와 존쿡델리미트의 샐러트리 그리고 의류 생산과정에서 버려진 옷감을 재활용해 만든 앞치마와 테이블 매트도 판매 중이다. 특히 앞치마는 윗감과 아랫감, 방수 천으로 만든 주머니 부분의 소재를 각각 달리해 실용성까지 더했다. 유 대표는 의미 있는 제품으로 동네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보마켓이 되길 바란다는 포부를 전했다.

주소 중구만리재로 205  
영업시간 매일 오전  
10시~오후 5시 30분  
문의 393-0205

1, 2 버려진 옷감을 재활용해 제작한 라이프 웨어 앞치마와 테이블 매트.  
3 보마켓 서울로의 시그너처 메뉴 '버터치킨 카레'.



## 개성 가득한 식탁을 채워줄, Ffot

'Five four one two'를 줄인 말인 숏 'Ffot'는 테이블 위를 풍요롭게 만들어줄 제품으로 가득하다. 매일 사용하는 컵과 접시, 커튼러리는 물론 분위기에 생기를 더하는 꽃을 꽂는 화병, 식사에 곁들이기 좋은 내추럴 와인, 신선한 치즈와 사퀴트리가 한 공간에 있다. 테이블웨어를 선보일 때 공간에 어울리는 작가를 선정해 그들의 공예 작품까지 소개하기도 한다.

윤도요 매니저는 이름에 갇히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공간의 이름을 주소에서 따왔다고 설명한다. 메뉴명도 마찬가지다. '003' 샌드위치는 잠봉 보르 같은 일반 사퀴트리 샌드위치가 아닌 Ffot만의 개성이 느껴지는 시그너처 메뉴. 검은색 멜론빵에 모르타델라 피스타치오 햄, 브리 치즈를 돌돌 말아 이색적인 비주얼을 완성했다. 사퀴트리와 치즈가 많이 들어가는 만큼 향과 풍미가 아주 풍부하게 느껴지는데, 셀러리 피클과 샌드라이드 토마토가 식감과 상큼함을 더해 맛의 균형이 좋다.

현재는 공예 작가와 협업해 우리 전통 술을 담은 잔을 주제로 새로운 형태의 전용 잔 제작을 진행하고 있다. 작가의 개성과 Ffot의 감성이 어떤 조화를 이룰지 기대를 모은다.

주소 용산구 이태원로54가길 12  
 영업시간 매일 오전 11시 30분 ~  
 오후 8시 30분  
 문의 @shop.fivefouronetwo

**1** 프로볼로네 치즈, 토마토 치즈, 브라운 치즈, 과일 및 너츠 치즈로 구성된 'Ffot 치즈'.

**2** 곡물에서 추출한 원료를 섞어 만든 바이오 에코젠 소재로 제작한 다회용 친환경 보틀. 현재는 그린티 라테를 담아 판매 중이다.

**3** Ffot에서 판매 중인 알바니 '화이트 트리플 초콜릿'. **4** 시그너처 메뉴 '003' 샌드위치와 '치즈 라테'.





주소 성남시 분당구  
불곡남로 91층  
영업시간 오전 11시 오픈,  
마감 시간 요일별 상이, 월요일 휴무  
문의 0507-1362-3571

- 1 여름과 어울리는 산뜻한 로제 펫낫 '와이 피노네로 로자토 프리잔테'.
- 2 라즈베리 함량이 높아 풍부한 과육이 느껴지는 라즈베리 잼.
- 3 인기 브런치 메뉴 '스크램블드에그 연어 토스트'.

### 골목길 로컬 마켓 프로젝트, 엘름코너마켓

분당의 조용한 골목길이 오전 11시가 되자 활기로 가득하다. 동네에 생기를 더하는 푸른 터키색 외벽의 '엘름코너마켓'이 오픈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평범한 골목길 코너에서 마주하는 소소한 행복'을 모토로 하는 이곳은 올해 3월 오픈 이후 4개월 만에 동네 주민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브런치 카페이자 식료품점으로 거듭났다. 파리 르 코르동 블루의 제과-제빵 과정을 졸업한 구선아 대표와 뉴욕 요리학교 ICE에서 요리 과정을 수료하고 CJ푸드빌의 메뉴를 총괄하는 상품팀장을 역임한 지은경 대표가 각각 베이커리 파트와 메뉴 및 운영 파트에 자신의 노하우를 녹여냈다.

엘름코너마켓에서는 베이커리를 비롯해 파스타 면, 와인, 치즈, 초리조, 올리브 오일 등 가게에서 사용 중인 식재료 또는 베이커리와 곁들이기 좋은 식품을 만날 수 있다. '마켓'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매일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가격대로 구성했다. 매일 아침 직접 만든 사워 도에 버터 스크램블드에그, 훈제 연어를 올려 부드러운 식감과 풍미가 인상적인 '스크램블드에그 연어 토스트'는 꾸준히 사랑받는 브런치 메뉴다. 엘름코너마켓은 늦은 점심 여유를 즐기기에에도, 소중한 이에게 요리를 대접하기 위해 검증된 식료품을 구매하기에도 안성맞춤인 동네의 작은 기쁨이다.





주소 강남구 압구정로42길 54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9시  
 주말 오전 11시~오후 9시  
 문의 0507-1432-1178

- 1 생바질과 파인애플, 레몬즙 등 100% 천연 재료로만 만든 '바질파인소르베'
- 2 모듈형 수경 재배 키트 '엔싱 스퀘어'. 본체, 소일, 포트, 씨앗으로 구성해 집에서 쉽게 홈 파밍에 도전할 수 있다.



## 신선함의 공간화, 식물성 도산

푸릇푸릇한 채소만큼 신선함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것이 또 있을까? '지구와 화성 사이, 신선함의 별'을 상상하며 만든 '식물성 도산'은 스마트 팜 전문 기업 엔싱의 소품이다. 한쪽 벽면을 차지하는 수직 농장에서 샐러드에 자주 활용하는 로메인, 버터 헤드 상추, 바타비아가 자라나고 있다. 이렇게 자란 채소들은 오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뿌리째 포장해 판매 중이다. 자라는 모습부터 다 자란 채소까지 스마트 팜 채소의 사이클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인 것이다. 커피 마시러 왔다가 채소를 사가는 젊은 손님들의 모습이 이색적이다. 수경 재배하는 바질이 마치 궤도를 도는 행성처럼 레일 위에서 이동하는 모습도 장관이다. 투명 아크릴 화면에 심어, 어떻게 뿌리가 자라고 있는지 관찰할 수 있다. 입으로 경험하는 신선한 메뉴들은 미쉐린 스타 셰프 김호윤과 함께 개발했다. 아메리카노보다 더 많이 팔린다는 '바질 파인 소르베'는 엔싱 수직 농장에서 재배한 바질로 만든다. 안정제를 넣지 않고 천연 재료로만 키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 DESIGN SPOT

#오늘의숨 #디자인스팟

디자인 스팟은 <럭셔리>, <럭셔리M>, <디자인>, <행복이 가득한 집>, <스타일 H> 등을 발행하는 디자인하우스의 에디터와 마케터가 선별한, 지금 가장 주목할 만한 상업 공간입니다. 카페와 레스토랑, 플래그십 스토어, 편집매장 등 콘셉트와 이야기가 있는 공간을 모아 각 매체의 지면과 SNS를 통해 소개합니다. 디자인 스팟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공식 인스타그램 (@designspot.dh)과 네이버 포스트(c11.kr/designspo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LUXURY

'럭셔리'는 물질을 앞서는 정신의 풍요라는,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삶의 가치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럭셔리>는 명품의 진정한 의미와 예술이 주는 감동을 통해 여러분의 품격을 올려드리는 잡지입니다.

Since 2001, Monthly <LUXURY> has captivated an ultra-affluent market with authoritative coverage of luxury lifestyle. <LUXURY> brings to life the flair and artistry of the brands that matter most to a sophisticated readership.

# B&B ITALIA



design Mario Bellini - [www.bebitalia.com](http://www.bebitalia.com)

## Infini

**인피니** SEOUL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777 (청담사거리)    BUSAN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순환로 454 (미포오거리)

T. 02 3447 6000    [www.infini.co.kr](http://www.infini.co.kr)  
T. 051 731 3470    [infini@infini.co.kr](mailto:infini@infini.co.kr)

## camaleonda

dieci, cento modi di vivere

CHANEL.COM CUSTOMER CARE CENTER 080-200-2700



MARGOT ROBBIE

# CHANEL

## J12

IT'S ALL ABOUT SECONDS

셀프 와인딩 매뉴팩처 무브먼트  
견고한 세라믹 워치. 스위스 메이드. 보증기간 5년.